

IV. 日本 動靜

美·日·獨의 협조 개입에 의한 최근 엔低 현상은 일본 경기 회복을 위한 잠정적인 「집행유예」 조치

최근 엔低는 「執行猶豫」 措置

○ 「逆플라자 兪意」

- 미국은 향후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일본·독일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엔高·마르크高에 의한 침체된 양국의 경기 회복이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하여, 三國 협조 시장 개입을 이끌어내어 「달러高·엔低·마르크低」를 유도함
- 따라서 최근 엔低는 단기적인 현상이고, 미국은 일본·독일에 대해 규제 완화, 공공 투자 확대, 금리 인하 등을 통한 內需 擴大 요구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
- 日本에서는 제2차 추가 확대 예산 편성이, 獨逸에서는 금리 인하가 주요 당면 과제로 부상하게 됨

(「朝日新聞」, 8.18)

CALS 붐의 陷穽

장미빛으로 일관된 최근 CALS 붐에 관한 警鍾

○ 소홀한 인프라 논의

- CALS 보급에 절대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의 標準化, PC 통신, 인터넷 등에 대한 논의가 소홀함
- 현재 인터넷을 일본 사용자들이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 보조금 덕분임. 문제는 향후 미 정부 보조금이 끊긴 이후에 일본측 부담 증가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임

○ 標準化 리스크

- CALS의 EDI(電子데이터 交換)에 관한 기준이 미국식이던 유럽식이던 확정이 되면 일본기업은 標準化 리스크를 피할 수 없음
- 문제는 표준화의 기반이 되는 「情報의 共有化」에 익숙치 못한 일본기업 풍토임

○ 保安性 문제

- 인터넷의 완전 개방 시스템 하에서 주요 정보의 보호 장치에 관한 문제

(「週刊東洋經濟」, 8.19)

戰爭 補償·謝罪 方法에 있어서의 日·獨 兩國의 相異點

戰後 處理의 日·獨 比較

○ 補償 方法의 差異

- 독일은 철저한 피해 당사자 개인 위주의 보상
- 일본은 爲政者간의 거래에 의한 國家간 보상
 - 따라서 일본은 피해 당사자 개인에게는 직접적인 보상을 하지 않았음

○ 謝罪 方法의 差異

- 독일은 책임 소재 및 戰犯 處理를 명확히 함
- 일본은 日王의 직접 사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戰犯 處理에도 매우 미온적이었음
 - 이는 미국의 對日 政策이 東西 冷戰으로 '斷罪'보다는 '反共'을 우선시했기 때문임
 - 대부분의 右翼인 전범들은 곧 復權되었음

(「朝日新聞」, 8.23)

새로운 환경 평가 법 도입에 따른 「그린 GDP」 개념에 관해 고조되는 관심

高潮되는 「그린 GDP」에 대한 關心

○ 경제 활동에 「環境 費用」 개념 도입

- GDP에서 環境破壞 손실액을 공제한 「환경·경제통합 計定(그린GDP)」의 연구가 UN을 중심으로 현재 활발히 진행중임
 - 일본 경제 기획청도 1990년에 세계 최초로 그린 GDP를 계산·공표한 바 있음
- 그린GDP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면 환경 대책에 유용하게 쓰여질 것은 물론, 환경 오염이 심각한 아시아 국가에 기술 협력이나 정책 지원에도 크게 유용할 것임

○ 推計方法의 精密化가 課題

- 기존의 추계 대상은 대기 오염에 한정했는데, 향후 地球 溫暖化·오존층 파괴 등에 대한 추계 방법의 개발·정밀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름
- 추계 대상에는 각국의 對外經濟 活動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파괴 문제까지도 고려되어야 함

(「日本經濟新聞」, 8.19)